

지구민주주의와 초국적 사회운동: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사례를 중심으로*

공석기**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 야기한 민주적 운영원리의 결손에 대한 대안으로 기획된 지구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을 주목하고, 그것의 기원과 성장 및 전지구적 확산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성장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외적요인-지리적, 인구 및 사회경제적 장애물-및 내적요인-구조적 장애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열린 공간으로 기획된 초국적 공공영역인 세계사회포럼은 참여한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단체에 초국적 운동 담론,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초국적 정치기회 구조 등을 제공한다. 물론 이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제3세계시민사회는 그 운동영역을 자신의 지역으로만 제한시키는 '강경파'(rejectionist)적 태도를 견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사회포럼의 지역적 확산 혹은 권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포럼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풀뿌리에 기초한 전지구적 활동가'(rooted

* 본 논문은 2007년 한국 후기 사회학회 대회의 '시민사회와 NGOs' 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평을 해 주신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의 김성현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국제대학원 강사.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사회학, 사회운동론, 지구시민사회, 환경, 인권, 사회학 방법론 등이다. 주요 저서로 "Transnational Mobilization to Empower Local Activism: A Comparison of the Korea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Movements" (미국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지구시민사회의 작동원리와 한국 사회운동의 초국적 동원전략" 『한국사회학』 40: 1-36(임현진과 공저); "한국 환경운동의 초국적 동원과정의 동학: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환경사회학연구 ECO』 4: 8-45. 연락처: 02-880-2513, E-mail: skong@snu.ac.kr.

cosmopolitans)를 지속적으로 양산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초국적 운동단체의 매개고리 역할에 힘입어 그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 동원과 지구적 운동프레임의 학습, 적용, 그리고 응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제어: 세계사회포럼, 지구민주주의, 초국적 공공영역, 초국적 사회운동, 지역적 확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열린토론과 책임 있는 참여과정을 통해 가치 형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안별 토론과 비교를 위한 상호 작용활동 기회를 가져야 한다(Amartya Sen, 2000).

1. 왜 지구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급속적인 통합과정은 시장 주도의 전지구화 과정의 전형적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적 전지구화 과정은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전지구적으로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과 UN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0대 빈곤국가의 경제상황이 지난 80년대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 준다(UNDP, 2005). 이는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의 실패를 의미하며, 그 핵심적인 이유를 국제 금융조직들의 '민주적 운영원리의 결손' (democratic deficit)에서 찾곤 한다.

기실 정치, 경제, 환경, 군사, 문화 등의 차원에서 진행된 전지구화 과정으로 인해 일국의 정책결정은 더 이상 자국의 의사결정과정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초국적 정책들이 자국 정책결정 및 구

현 과정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 통합 과정은 소수 금융전문가 엘리트들이 비공개 방식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탈정치화 과정’의 산물이다. 이 과정은 리더십과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업중심의 지배구조를 낳았고, 그 결과 정치적 자유, 사회 정의 및 평등이라는 전지구적 대의가 사라지는 소위 ‘지구 민주주의(global democracy)의 위기’를 야기했다.

이러한 전지구화의 위기상황 속에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이하 WSF)은 하나의 대안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 WSF는 영국의 대처(M. Thatcher) 전 수상이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역설한 것에 반대하는 초국적 사회운동(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에 힘입어 시작되었다. 즉 WSF는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지배에 대한 대안 —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 을 창출하고자 기획된 지구시민사회의 공동프로젝트이다. 특히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WSF는 전지구화 과정의 민주적 운영원리가 실천되는 현장이며, 기존에 소외되었던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표현, 교환 및 학습되는 ‘초국적 공공영역’ (transnational public sphere)이 되었다(Guidry et al., 2000). 이 초국적 공공영역은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장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요컨대, WSF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민의 탈정치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에 그 동안 저항했던 사회정의, 평화, 인권, 노동권 및 생태보전 등의 운동 부문간의 연대활동의 결정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della Porta et al., 2006; Smith et al., 2007: 14).

2001년 1월 말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열린 1차 WSF는 기존의 ‘반지구화’ (anti-globalization) 운동에서 ‘대안적 지구화’ (alternative globalization)로 운동 전략상의 변화를 보인 운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편,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 시작한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경제정책 및 운영방향에 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을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갖고 있다. WEF는 사적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며,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로 상징되는 자유화, 민영화 및 탈규제 원칙이 폐쇄적이고도 위계적인 방식으로 정책결정되어지는 반면에, WSF는 ‘포르투 알레그레 컨센서스’ (Porto Alegre Consensus)로 상징

되는 투명성, 개방성 및 민주성의 대원칙을 견지하며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 결과, 전자는 약 2,000명의 소수 엘리트 만을 초대하는 닫힌 공간으로 머물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2001년 첫째 10,000명에서, 2002년 50,000명, 2003년과 2004년에는 100,000명, 그리고 2005년에는 155,000명으로 그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ecker, 2007).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인도 뭄바이(Mumbai),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Caracas) 그리고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된 WSF의 열린 공간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 운동단체, 초국적 사회운동단체 및 국제 NGOs 활동가들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전쟁, 빈곤, 기아, 착취 및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연대활동을 기획하였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고자 공동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은 소위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었다.

그러나 WSF 역시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다. WSF에 참여자를 살펴보면, 지역, 인종, 성, 학력, 세대, 그리고 운동부문 등에 따른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Sen, 2004; Chase-Dunn et al., 2006; Reese et al., 2006). 또한 WSF의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독립성 문제가 WSF의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쟁점을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WSF가 지역, 국가, 그리고 도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도 고려할 대상이다(Teivainen, 2002; Smith, 2004, 2005; Patom, ki & Teivainen, 2004; Becker, 2007).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논문은 초국적 사회운동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초국적 사회운동은 지구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으로서의 다양한 시민사회포럼 — 도시,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 — 에서 중요한 매개자(brok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국적 사회운동을 추진하는 초국적 운동단체들은 각 층위의 공공영역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좌절 혹은 고립되는 풀뿌리 운동단체를 초국적 공공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연결'(bridging)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동원과정 및 이슈의 전지구화 노력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본 논문은 지구민주주의 구현의 실험장으로서의 WSF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장애물을 지구 민주주의 구현과 관련된 논

쟁점으로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를 지향하는 다양한 초국적 사회운동의 ‘연결고리 테제’에 주목하여,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초국적 공공영역으로부터 이탈 혹은 도태되는 운동단체를 다시금 그 안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초국적 사회운동의 역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지구민주주의의 구현과정: 세계사회포럼

지구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세계사회포럼(WSF)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WSF의 형성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 본 후에, 이 포럼의 운영 원리를 ‘세계사회포럼 헌장’(WSF Charter of Principles)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별히 풀뿌리 운동단체와 초국적 운동단체 간의 연례적인 회합 공간, 즉 초국적 공공영역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주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적 논의를 초국적 정치기회구조의 확장, 자원동원 구조의 변화 및 운동 프레임의 사회화 등의 초국적 사회운동 핵심 기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세계사회포럼의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1) 세계사회포럼의 기원

처음에는 WSF가 반지구화(anti-globalization)운동으로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WSF가 지구화의 긍정적인 측면까지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부(富)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기 보다는 일반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적 지구화를 지향한다. 대처 전 수상의 ‘대안부재’(There is NO Alternative: TINA) 주장을 거부하고, ‘대안가능’(Another World is Possible) 슬로건을 내세웠다. WSF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의 운동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WSF가 결코 서구 선진국 NGOs의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운동 산물이기 보다는 제3세계 시민사회(Global

South)가 중심이 되어 지난 십여년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그 첫 번째 노력은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 제3세계의 다양한 NGOs 간의 첫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6년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에서 열린 제 1회 ‘반신자유주의와 인류사회를 위한 국제교류 회의’ (International Encounter for Humanity and Against Neoliberalism)도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모임은 사파타주의자(Zapatistas)가 자신의 운동대상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WSF를 준비하는 제3세계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의 기초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남미 사회운동가들에게는 익숙한 상호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한 모델이 되었다(Smith, 2004; Becker, 2007).

그러나 시민사회가 이데올로기, 계급 그리고 국가라는 경계를 뛰어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초국적 저항세력으로 폭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1999년 11월의 미국 ‘시애틀 전투’ (Battle of Seattle)였다. 비록 이 지구적 저항운동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제3차 장관급 회담을 좌절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지만, 이는 국제금융조직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시애틀 전투에서의 승리감을 맛본 일군의 초국적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다음해 1월, 연례 세계경제포럼(WEF)도 좌절시키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Davos)에 집결하였다. 전 세계에서 모인 150여 명의 지식인들은 ‘다보스 반대 시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다보스의 삼엄한 경찰통제와 시위에 불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시애틀과 같은 대규모 직접 시위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후, 새로운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결의하였다.¹⁾ 그 결의 내용으로 이 모임은 반드시 제3세계 국가에서 개최하며, 이 모임은 ‘세계사회포럼’(WSF)으로 명명하고, 모임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다보스 회의와 같은 시기에 이 포럼을 개최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1회 포르투 알레그레 WSF는 브라질의 8개 지역단체가 중심이

1) 대항 포럼을 기획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는 그라주(Oded Grajew, coordinator of Brazilian Entrepreneur's Association for Citizenship), 까쎡(Bernard Cassen, chair of ATTAC & director of *Le Monde Diplomatique*), 그리고 휘태커(Francisco Whitaker)이다 (Teivainen, 2002: 623).

된 조직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노동당 (Workers Party)이 이 포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2001년 1월, 그 역사적인 첫 번째 포럼이 출발하였다(Teivainen, 2002).

제1회 WSF에는 117개국으로부터 5,000명의 공식 등록자와 수 천명의 브라질 활동가가 참가했다. 2002년 제2차 포럼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현격히 증가하여, 123개국으로부터 12,000명의 공식 대표자가 참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브라질 활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 만 명의 참가자를 기록했다.²⁾

2) 세계사회포럼의 운영원리

WSF는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고, 민주적인 토론장이다. 또한 다양한 운동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며, 참여자의 다양한 운동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학습공간이며,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에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조직을 수평적이고도 수직적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다. 이러한 포럼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운영원리가 필요했고, 그것을 포럼 헌장(Charter of Principles, 이하 헌장)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장 원리와 충돌하는 현실 간의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쟁점은 포럼의 조직화와 관련 있다.

첫째, WSF는 헌장 1조에 이 포럼을 하나의 토론 '공간' (space)임을 명시하고 있다(WSF, 2001). 그러나 WSF가 하나의 토론 공론장을 넘어 다양한 운동조직 간의 연대체, 즉 하나의 '기구' (body)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WSF 명의의 공동 선언문을 만들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WSF의 최초 기획자 중의 한명인 위태커(Chico Whitaker)는 반전 선언문을 WSF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은 WSF의 핵심 원리인 '열린 공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는 만약 WSF가 중요 사안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나누

2) 이 숫자는 포럼에서 밝힌 공식적인 결과이다. 웹사이트 참조(<http://www.orumsocialmundial.org.br>).

고, 배우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기획된 WSF가 획일화된 논의만을 선호하는 과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는 이러한 단일체적인 활동은 부지불식 중에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관료화 및 위계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Whitacker, 2004).

둘째, WSF는 현장 3조에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과 운동들이 모여 새로운 전지구화 모델을 숙의하는 민주적 '과정' (process)임을 명시 하고 있다(WSF, 2001). 그러나 거대한 규모의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중앙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양한 운동, 학술토론 그리고 문화행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사회 스스로 효과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등등의 비판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연례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과 주관 운동조직의 에너지 소모 등을 고려할 때, 이 거대 행사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정치과정으로서의 행사를 강조하기 보다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메커니즘을 전제한 하나의 중앙 집중적인 리더십을 갖춘 WSF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는 '운동단체의 결합' (assembly of social movements)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위계적인 보고체계를 통해 사안에 따라 효과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Wallerstein, 2004). 즉 운동의 느슨한 결합체는 하나의 정치과정으로서 WSF를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이다. 중앙 집중적인 운영 없이 WSF를 매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기에, 이 행사를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개최하자는 주장이 WSF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WSF의 운영원리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은 이 포럼이 공간이나 또는 행위자나, 다양한 아우성이거나 또는 공통의 목소리나, 공동행동 지침이나 아니면 각 개전투식 선언문의 전시장이거나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논쟁은 WSF를 통해 지구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장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운영원리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WSF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 세계사회포럼의 성장: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나이로비까지

2001년 1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한 WSF는 다보스의 WEF의 폐쇄성과 배타성과 대별되는 개방성과 포괄성을 특징으로 후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초국적 공공영역을 창출시키고, 그 안에서 참가자들은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 운동프레임의 전지구적 확산의 통로가 되었다. WSF의 급속적인 성장과정을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 Brazil)

2001년 첫째 포럼은 대체적으로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결합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신자유주의 주도의 세계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였고, 그 이후로는 대안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포르투 알레그레 WSF의 변화 특징은 운동내용의 급진화와 참가자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WSF의 급진화는 브라질 대통령 룰라(Luiz In cio Lula da Silva)와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Hugo Chávez)가 참석한 2003년과 2005년 WSF 사이에 각각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WSF의 하이라이트는 룰라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포럼에 참여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대단한 환영과 기대를 온 몸으로 받았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WSF는 정당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한다. 그러나 브라질 좌파 정당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는 이 포럼을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초청을 받았고, 또한 룰라 스스로도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해서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이다. 룰라는 WSF의 대형 원형극장에 모인 100,000명의 환호와 지지를 받았고, 다보스 WEF로 향하면서, 다보스에 있는 정치 경제 엘리트사람에게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 포르투 알레그레에 귀를 기울이자'고 역설하겠다고 약속하였다(WSF, 2003). 한편, 차베스 대통령은 2003년 당시에는 룰라와 같은 환대와 지지를 WSF로부터 받지 못했다. 사실 WSF는 현장 9조에 정당과 폭

력지향의 조직들은 포럼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베스는 대통령으로서 그곳에 참가할 수 없었고, 그 대신에 포럼의 주요행사장과는 별도로 마련된 소규모의 강당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년 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다시 열린 2005 WSF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몰라는 15,000명이 모인 기간틴호(Gigantinho) 경기장 연설을 통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멀어진 시민사회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며칠 후 동일한 장소에서 차베스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로부터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는 “나는 이곳에 대통령으로 오지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의 농민이며, 군인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기로 헌신한 사람으로 이 포럼에 참석하였다”고 역설하면서 제3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호소하였다(WSF Porto Alegre, 2005). 이러한 그의 급진적인 용어와 정책은 당시 사회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과 같이, 2005년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연구팀이 실시한 WSF 참석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다수(58%)가 ‘현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반드시 폐지하고, 이를 더 나은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치조직, 노조, 사회운동조직에 소속된 포럼참가자들 중에 비교적 젊은 세대(1960년대 출생)가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다(Risse et al., 2006).

둘째, 포럼 참가자의 양적 확대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05년 WSF에는 135개국으로부터 155,000명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실 포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나 거대해지고 다양해졌기에 개인이 포럼 전체 규모와 활동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포럼 내내 수많은 포럼과 워크숍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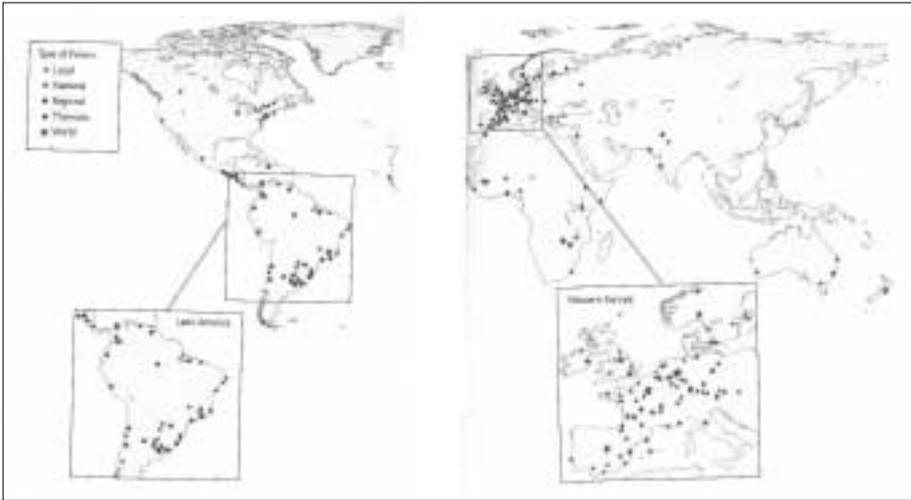
<표 1> 자본주의 체제 개혁 혹은 폐지에 대한 포럼 참여자 의견 비율(%)

응답 내용	유효 비율 (%), 전체 응답자 수(548)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	42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더 나은 체제로 바꾸어야 하다.	58
두 가지 선택	1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survey*(Reese et al., 2006 재인용).

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동시에 다양한 캠페인과 운동양식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예컨대, 2005년 WSF에는 2,500여 개의 주제별 활동들이 제3세계 시민사회의 지역 행사로 이루어졌고, 이 행사와는 별개로 개최된 국제청소년 캠프에는 35,000명이나 참석하였다. 또한 과거 주변에 머물러 있던 원주민 단체들도 사회포럼 행사기간 동안 자신의 문화프로그램을 포럼의 일부 행사로 조직하였다. 일례로 이 행사 — ‘Puxirum of Indigenous Arts & Knowledge’³⁾ — 는 100여 개의 원주민 단체들과 대표자 4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조직한 최초 원주민 문화 행사로 큰 의미가 있다(WSF 2005 Porto Alegre).

WSF의 성장을 단일 행사 규모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역, 국가, 그리고 지방 도시로 확대되는 이른바 사회포럼의 ‘사회화’ 혹은 확산이라는 질적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1>과 <표 2>는 사회포럼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포럼(regional social forum)은 유럽, 아시



출처: *Global Civil Society Yearbook 2005/6* (Glasius et al., 2006: 196-197 재인용).

<그림 1> 지역 사회포럼

3) Puxirum은 브라질 Tupi-Guarani 원주민 용어로 ‘공통의 목표를 향한 노력에로의 동참’을 의미한다. 이 문화행사는 모임 막바지에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며,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이다.”라는 선언문을 제시했다.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noticias_01.php?cd_language=1&cd_news=1394)

〈표 2〉 지역사회 포럼 및 개최도시

지역 포럼	지역과 개최 시기
유럽 사회포럼 (European Social Forum)	Florence, November 2002 Paris, November 2003 London, October 2004 Athens, May 2006
라틴아메리카 사회포럼 (Social Forums of the Americas)	Quito, Ecuador, July 2004 Caracas, Venezuela, January 2006
지중해 사회포럼 (Mediterranean Social Forum)	Barcelona, June 2005
카리브해 사회포럼 (Caribbean Social Forum)	Martinique, July 2006
아시아 사회포럼 (Asian Social Forum)	Hyderabad, India, January 2003
아프리카 사회포럼 (African Social Forum)	Addis Ababa, Ethiopia, 2003
범 아마존 지역 사회포럼 (Pan-Amazon Social Forum)	Belém, Brazil, January 2002, 2003 Ciudad Guayana, Venezuela, February 2004 Manus, Amazonas, January 2005

출처: www.forumsocialmundial.org.br

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지중해 연안지역과 범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유럽과 남미 지역에 WSF의 확산과정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개최 장소가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포럼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서구 선진국 NGOs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는 아직도 지방수준의 소규모 사회포럼 보다는 거대 수준의 중앙집중식 사회포럼을 조직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 지역도 사회포럼이 점차 국가 및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뭄바이(Mumbai, India)

2003년 포르투 알레그레 WSF의 참가자 100,000명 중 약 80~90%가 브라질 국적이다. WSF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WSF 국제위원회가 2004

년 모임을 아시아 지역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WSF의 면모가 대폭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실 아시아에서의 WSF 개최는 인근 지역 시민사회에게 연대의 폭을 확장시키는 유리한 초국적 정치기회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Stiles et al., 2000; Smith & Johnston, 2002). 동일한 이유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아프리카 시민사회 역시 배려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는 2007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7차 WSF를 개최하게 되었다.

뭄바이 WSF는 포르투 알레그레 WSF와 많은 측면에서 다른 점을 보인다. 후자는 지적 전통, 정치지향 및 담론 등에서 유럽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생동감 있는 문화적인 행사나 행진 그리고 시위가 중심을 이루었다(WSF Mumbai, 2004). 과거와 마찬가지로 뭄바이 WSF 역시 참석자 대부분은 개최지 인도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풀뿌리 활동가들이다. 그러나 점차 참여자들이 초국적 연대활동의 장애물을 불평하기 보다는 국가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동시에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운동부문간의 수렴현상을 주목하면서 다양한 초국적 사회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표 2>가 보여 주듯, 사회포럼의 전지구적 확산과정이 2004년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뭄바이 포럼을 준비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인도 시민사회는 WSF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적어도 30,000명이 넘는 '달릿'(Dalits, 불가촉 천민)이나 '아디바시'(Adivasi, 원주민)가 이 뭄바이 포럼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지역공동체, 카스트제도, 인종주의 그리고 가부장제와 같은 이슈들을 새롭게 제안하며, 이에 대한 지구시민사회의 대안을 촉구하였다. 쉼 없는 그들의 드럼소리와 음악은 과거 소외되고 배척되던 자신들의 권리를 초국적 공공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수단이었다. 이 소리가 때로는 다른 주제와 관련한 워크숍과 세미나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는 거의 그들의 절규와 같이 지속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주장 — '인도 내외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도전과 저항 없이는 결코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지 않다' — 이 참석자들에게 알려지는 일종의 선전장이 되었다(WSF Mumbai, 2004). 많은 포럼 참가자들이 달릿이 조직한 토론 모임에 참여하여, 그들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국제옹호망 구축이 절실함을 공감하게 되었다(WSF Mumbai, 2004).

뭄바이 WSF에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내용은 특정국가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직접행동을 조직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기회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전지구적 반전운동 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Global Anti-war Movement)가 뭄바이 포럼에서 형성되었고,⁴⁾ 이 모임은 전 세계의 반전활동가들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초국적 공공영역이 되었다. 이후 반전운동 총회는 반전시위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토론하는 전략공간이 되었다. 물론 이 반전운동 총회는 다른 전지구적 이슈들-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 전통적 형태의 제국주의, 군사주의 및 미국 일방주의- 등과도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Smith, 2004: 417).

요컨대, 뭄바이 WSF는 참가자들에게 당면한 전지구적 사안인 이라크 전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토론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초국적 정치기회 구조가 되었다. 동시에 뭄바이 WSF라는 초국적 공공영역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아시아 시민사회가 아시아 지역 내는 물론 그 경계를 초월한 의사소통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전지구적 반전운동이 기존의 핵심 이슈인 신자유주의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문제와 어떻게 연계하여 활동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3) WSF의 다원적 모델(Polycentric Model)

2005년까지의 WSF 경험을 통해 국제위원회는 2006년 WSF를 새로운 모델, '다원적 회의' (polycentric meetings)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세 지역 — 파키스탄의 카라치(Karachi, Pakistan), 말리의 바마코(Bamako, Mali),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Caracas, Venezuela) — 에서 동시에 포럼을 개최하여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의 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증대시키고자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경우는 그해 1월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포럼을 3월로 연기해야만 했다. 그 결과 말리와 베네수엘라 두 지역만이 1월에 순차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Becker, 2007).

4) 이 연대활동 모임은 2003년 11월 아시아 포럼에 참석한 17개국 50여 개 아시아 운동단체에 의해 발의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http://www.tni.org/detail_page.php?page=acts_wsf4assembly).

카라카스 포럼의 개최 행진 때 사용한 주요 슬로건 내용을 보면, 포럼의 지역화 및 다원화 과정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또한 슬로건의 내용 — “전쟁반대, 제국주의 반대,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아메리카도 가능하다” — 이 보다 급진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쟁과 지구화에 대한 대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수사가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급진화 경향에 대해 카라카스 포럼이 혹 정치적 선전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 포럼 역시 2,000여 시민사회운동 조직들이 1,800여 개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조직하였고, 대략 70,000여 명의 참가자가 다양한 주제들의 토론 공간 속에서 수 많은 만남 그리고 경험 공유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5일 동안의 일정을 누렸다(Cohen, 2006).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카라카스 포럼은 WSF가 과연 시민사회 밖의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차베스 정권은 카라카스 포럼에 대해 물질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차베스 정부는 포럼 참가자들에게 무비자 입국, 공항 택시와 대중교통 요금면제, 회의용 텐트 무상제공, 그리고 심지어 물병까지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연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반대자들은 사회포럼의 본래 의도인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 이유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사회는 국가나 정당의 정치적 영향 하에 언제든 지 들어갈 수 있는 치명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찬성의 입장에서는 국가와의 긴밀한 협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구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 혹은 악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국가 역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구조가 사회 정의라는 지구시민사회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후자는 차베스 정권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SF 현장에 명시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과연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얼마나 외부의 개입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방식으로 초국적 공공영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

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4) 나이로비와 애틀란타

2007년 WSF는 케냐 나이로비(Nairobi, Kenya)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준비위원회는 이미 2004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WSF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이것은 기획대로 다양한 풀뿌리 시민사회가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지속적인 초국적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2007년 WSF는 상징적으로 성공적인 포럼으로 평가한다.⁵⁾

뿐만 아니라 그 동안 WSF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국 시민사회가 드디어 2007년 6월 조지아주 애틀란타(Atlanta) 시에서 미국 사회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⁶⁾ 그 동안 미국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사회포럼은 열렸지만, 전국 차원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미국 시민사회는 9·11 사태 이후 기본적인 민주권리 확보 및 미국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이슈에 집중한 나머지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더 큰 차원의 초국적 연대활동에 소홀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애틀란타 포럼은 미국 시민사회에 새로운 전지구적 이슈를 알리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사회가 앞으로 지구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mith et al., 2007: 115).

4) 세계사회포럼과 지구민주주의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WSF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WSF는 다양한 시

5) 나이로비 WSF에는 공식적으로 110개국 1,400개의 시민사회 단체 및 66,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들은 1,200개의 워크숍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위 그리고 음악 공연 및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석하였다(Joyce, 2007).

6) 미국 내 도시 및 권역별 사회포럼을 소개하면, 보스턴(2004), 시카고(2005; 2006), 휴스턴(2006), 로스앤젤레스(2007), 메인주(2006), 뉴욕(2002; 2003), 푸에토리코(2006), 그리고 샌프란시스코(2002)와 중부지역사회포럼(2004; 2005; 2006), 동남부지역포럼(2006), 국경지역사회포럼(2006) 등이 있다(Smith, 2007: 114).

민사회의 만남의 공간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 그리고 운동 경험을 나누고 학습하는 초국적 공공영역이다. 이 공간은 동시에 어떤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동기관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구, 의견 그리고 주장들이 소통되고, 토론되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WSF는 초기부터 어떤 획일적인 공동의 행동지침을 포럼 명의로 결정하고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여과 없이 분출될 수 있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이자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탈 중심적이고 산만한 운영과정으로 인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WSF는 운동 조직 간의 강한 네트워크 혹은 결합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긴장 속에서 WSF는 여전히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고 있지만, 포럼 대내외적으로 점차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다원적인 포럼방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WSF가 정당과 국가와 어떤 관계성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포럼 자체가 거대한 지구문화 행사이기에 이것을 매년 준비하고 조직하는 것이 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때로는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2년 혹은 3년마다 개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다음 WSF는 2009년 브라질 벨렘(Belém)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요컨대, 초국적 공공영역의 개념과 초국적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WSF는 지구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험장임이 틀림없다. 수직적인 네트워크보다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서구 선진국 시민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의 전지구화가 아닌 제3세계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위 아래로부터의 '마스터 프레임' (master frame) 창출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WSF는 이러한 지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것과 씨름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WSF의 장애물에 대해서 2005년 포르투갈 알레그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세계사회포럼의 장애물

초국적 공공영역 안에서도 선진국과 제3세계 시민사회 운동조직 혹은 NGOs 간의 불평등한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 이것은 소위 NGOs '남북문제' (Global North-South)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3세계 시민사회는 제한된 정보 접근과 자원 배분으로 인하여 초국적 연대활동에 있어서 주로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러한 남북문제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초국적 운동단체의 본부가 제3세계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제3세계 단체의 활동가들이 국제회의에 참여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자국 내의 산적한 문제 등으로 제3세계 시민사회가 초국적 사안에 대한 전지구적 대안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 시민사회는 WSF를 주목하게 되었다(공석기·임현진,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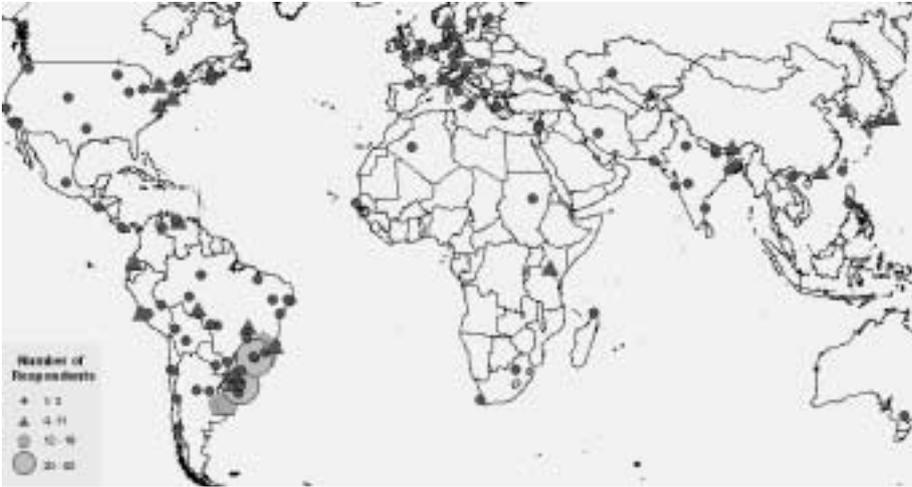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이 남북문제가 WSF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를 WSF에 과연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자료는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산하 세계체제연구소(Institute of Researches on World-Systems)가 2005년 포르투 알레그레 WSF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IBASE(Brazil Institute of Social & Economic Analyses)가 동일한 2005 포르투 알레그레 WSF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⁷⁾

1) 참여자의 지역적 불균형

2005 WSF 참여자의 출신을 질문한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표 3>과 같다. 지

7)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연구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람. (<http://irows.ucr.edu/>; <http://www.ibase.br>).

리적 요인으로 인해 WSF의 참여자의 수가 지리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통통신의 기술발달이 비록 초국적 사회운동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요인 — 여행경비, 문화적 거리 그리고 언어 등 — 이 여전히 남미 이외의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를 막는 핵심적인 장애물로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survey (<http://irows.ucr.edu/>).

〈그림 2〉 참가자 지역별 분포(WSF 2005, Porto Alegre)

〈표 3〉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WSF 2005, Porto Alegre)

	WSF 참가자 수	WSF 참가자 비율(%)	세계인구 비율(%) (2004년 기준)
남미	439	69	6
서구 유럽	67	10.5	12
북미(미국/캐나다)	53	8	5
아시아	48	7.5	61
아프리카	9	1.4	12
중미 및 카리브 해	7	1.1	3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2	.3	1
총계	625	100	62억 6천 9백만 명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survey (Chase-Dun et al., 2006 재인용).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활동가들이 저조한 참여(8.9%)로 인하여 그 지역의 시민사회가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리적 거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서구 선진국 사회운동 조직의 경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초국적 운동경험이 풍부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3세계 시민사회가 재정상의 어려움 혹은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초국적 공공영역에 참여하지 못하여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 시민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이다. 즉 이 참여자의 불균형 문제는 지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이유로 2006년 WSF는 다원적 모델을 기획하였던 것이다. 당시 WSF는 3개 대륙지역 — 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 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제3세계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2004년 뭄바이 포럼과 2007년의 나이로비의 포럼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다.

2) 인구 및 사회학적 장애물

지리적인 장애물 이외에도 WSF는 인구 및 사회학적 요인 — 인종, 성, 계급, 세대, 교육수준, 연령 등 — 으로 인해 참여의 불균형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종 및 종족별 참여자의 분포를 살펴보자.

〈표 4〉에서 보여주듯, WSF에는 백인들이 참가자의 반 이상(50%)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원주민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개최지 브라질의 경우에도 참가자의 인종 유형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제3세계 국가에서 WSF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럼 참가자들은 인종 혹은 종족의 측면에서 차별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포르투 알레그레에 낮은 비율의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남미의 많은 원주민과 유색인종, 특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계 남미인(라티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은

〈표 4〉 포럼 참가자 인종 및 종족 구성

인종 및 종족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브라질인 응답자 수 (%)
백인(Caucasian)	221	50.5	142 (54.8)
흑인(African)	80	18.3	58 (22.4)
남미(Latino)	36	8.2	20 (7.7)
아시아인	33	7.5	2 (0.8)
원주민	10	2.3	2 (0.8)
기타(비백인)	58	13.2	35 (13.5)
총계	438	100	259(100)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survey* (<http://irows.ucr.edu/>).

WSF 참여자가 인종 및 종족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종에 따른 참여의 불균형 현상은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기획된 WSF가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장애물인 것이다.

다음으로 2005 WSF의 참가자 연령과 학력 분포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가 만 26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포럼 참가자 대부분(약 61%)이 대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BASE, 2005). 참가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학생 혹은 중산층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응답자 중 약 15%가 대학 교수 및 교사였고, 응답자 중 약 1/3이 학생이었다. 오직 10% 미만의 응답자가 자신은 노동자 혹은 농업 종사자라고 밝혔고, 약 6.7%만이 반숙련 노동, 혹은 비전문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농업과 숙련노동자는 응답자 중에 겨우 1%를 넘는 수준이었다. 요컨대, WSF 참가자 다수는 전문직 종사자 및 지식인이었고, 반면에 저학력, 저소득층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WSF라는 지구적 행사에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보다는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갖춘 초국적 운동단체 혹은 NGOs 소속의 고학력의 전문 지식인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보다 진보적인 활

8) IBASE의 설문 조사(포럼 참석자 2,540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학생(40.8%), 공무원(civil servant, 17.5%), NGO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당 및 노동조합 활동가(11.5%), 일반 사무직(8.9%), 자영업(8.4%) 그리고 기타(12.9%) 등으로 직업분포를 보이고 있다(IBASE, 2005).

동에 관심이 많고, 여러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학생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표 5〉가 보여주듯, 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WSF 참여의 불균형 현상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숙의되는 지구민주주의의 구현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육아 담당 혹은 가사일로 인해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빈민, 여성, 노동자의 경우처럼, WSF 참가를 제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WSF 국제위원회는 물론 참가단체 모두가 이와 관련한 대안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장애물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불평등 현상을 막기 위한 전지구적 공동 대응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시민사회 스스로 '연대 기금' (solidarity fund)을 조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WSF 참가를 포기하는 단체나 활동가에게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WSF 참가자의 불균형 문제를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보인다.

요컨대,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인 WSF가 어떻게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야기된 참여자 불균등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는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초국적 차원의

〈표 5〉 포럼 참가자 직업 분포

직업 유형	참여자 수	참여자 비율(%)
전문직 및 예술가	230	36.0
학생	213	33.3
운동조직 활동가	23	3.6
NGO 스태프	13	2.0
반숙련 사무직	43	6.7
숙련 노동자	9	1.4
농업	7	1.1
자영업	15	2.3
무직	20	3.1
무응답	66	10.3
총계	639	100

출처: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survey (Chase-Dun et al., 2006 재인용).

‘지구정의 운동’(global justice movements)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에게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3) 구조적 장애물

사실 WSF의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은 포럼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 내부에도 존재한다. WSF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15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찾고 있는 운동파트너를 만나 그들과 지속적인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구문화 축제나 세계적인 명망가 혹은 지식인들만의 대규모 포럼 행사는 초국적 공공영역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2005년 WSF부터는 포럼 참가자들의 동등한 워크숍 및 세미나 조직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명 인사들 — 촘스키(Noam Chomsky), 로이(Arundhati Roy), 갈리아노(Eduardo Galeano), 그리고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 의 일종의 강의형 포럼은 더 이상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학자 발표자와 운동조직 활동가 참여자들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나 줄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며, 앞으로 WSF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음으로 WSF의 조직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구조적 장애물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WSF 현장에는 WSF가 하나의 정치운동 행위자(actor)로서 획일화된 공동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하나의 열려진 공간과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민주적으로 토론되는 정치과정으로서의 역동성을 강조한다(WSF, 2001). 그러나 이 원칙이 포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준비위원회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매년 WSF를 준비하는 국제위원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이 위원회에는 150명의 비선출직 조직 혹은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포럼 개최지 선정 및 포럼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가 때로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풀뿌리 운동단체가 준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권력이 또한 소수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 의사결정의 비투명성과 폐쇄성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포럼의 헌장에 언급된 운영원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지구민주주의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월러스타인도 WSF의 국제위원회의 폐쇄적 결정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운영 방식 때문에 WSF가 '하향식 조직' (top-down)이라는 인식이 시민사회 내에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WSF의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명백하고, 투명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Wallerstein, 2004).

마지막으로 WSF가 공간으로만 그 역할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BASE 설문조사에 따르면, <표 6>과 같이 응답자 대부분이 WSF 참여 목적을 지식, 정보, 경험 등을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토론하는 초보적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WSF를 단순한 초국적 공공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실 초국적 공공영역으로 기획된 WSF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나눔 및 학습

<표 6> WSF 참여 결정 목적(3가지 복수응답 결과)

참여 결정 목적	비율(%)
참가자들 사이에 경험 교류	49.8
공정한 지구사회를 이루려는 포럼에 대한 기대	47.9
다양한 의견개진 및 민주적 논쟁 참여	42.4
WSF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함	33.6
다양한 운동단체와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함	29.3
구체적 운동테마에 대한 토론	21.9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마련 과정에 동참	20.6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적 지배에 대한 저항에 동의	20.2
WSF이 정치정당을 배제한 성격에 동의	7.7
기존의 포럼에 참여 했던 경험	7.0
새롭게 변한 브라질의 정치적 맥락	6.9
포럼의 난장 형태의 운영방식에 공감	2.6
무응답	3.6

출처: IBASE-2005 WSF Research (<http://www.ibase.br>).

공간을 제공하여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운동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해당 지역운동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Tarrow, 2005). 동시에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후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옹호망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것이 강화되면 지속적인 네트워크에 기초한 초국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Khagram et al., 2002; della Porta & Tarrow, 2005). 그러나 앞으로 이 WSF가 지역, 국가 그리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모범적인 과정으로 혹은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제한된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공간 혹은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WSF는 참여 운동조직 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데 여전히 극복해야 할 다양한 구조적 장애물을 안고 있다. 초국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될 때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 포럼의 건강성은 유지된다. 이런 이유로 각 시민사회는 WSF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및 권역화 현상을 지구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초국적 사회운동의 연결고리 기능을 주목해야 한다.

4. 지구민주주의를 향하여: 매개자(Broker)로서의 초국적 사회운동

앞서 지구민주주의 구현의 실험장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의 기원, 성장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살펴보았다. 지리적,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열린 공간으로서의 초국적 공공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제3세계 시민사회가 세계사회 포럼 참가를 통한 혜택-초국적 운동 담론,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새롭게 열린 초국적 정치기회 구조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제3세계 시민사회가 이러한 초국적 차원의 운동 메커니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동영역을 지역으로만 제한시키는 전략을 취한다면, 이것은 소위 초국적 사회운동 전략을 거부하는 '강경파'(rejectionist)적 태도일 것이다. 진정 지역 시민

사회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장애물들을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강경파의 길을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저자는 결론을 대신하여 지구 시민사회가 마주한 이 딜레마를 초국적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역 시민사회는 강경파의 길을 옹호하기 보다는 초국적 사회운동의 연결고리 테제에 주목할 때이다. 그 이유는 초국적 사회운동이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사회포럼에서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를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시민사회가 자신의 역량을 우선 집중해야 할 영역이 지역-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미 카리브해, 지중해 등등-차원의 지역사회포럼임을 의미한다. 이 지역사회 포럼의 열린 공간에서 각 시민사회는 민주적인 토론, 자유로운 정보 교류 및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시켜 공동의 행동지침과 대안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사회 간의 건강한(robust)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스미스의 초국적 사회운동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경과 여성운동 부문은 지역내 네트워크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반면에, 인권과 노동 그리고 경제정의 부문은 지역을 넘어선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한다(Smith, 2005). 이는 운동부문별로 초국적 사회운동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이 일정 지역내의 네트워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단체들은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자원동원 능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갖추진 못한 제3세계 운동조직의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인권, 노동 및 경제정의 이슈를 다루는 운동단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의 강화로 운동대상 역시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초국적 네트워크 운동을 더욱 지향하며,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대항운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모든 운동부문이 세계사회포럼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초국적 사회운동에 대한 강경파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대신에 우선 지역차원에서 초국적 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그림 1>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회포럼의 지역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초국적 사회운동 역시 지역수준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초국적 사회운동은 지역사회포럼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풀뿌리 시민사회를 초국적 공공영역으로 끌어올리고, 그곳에서 운동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운동프레임이 논의, 학습, 및 확산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통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자신의 운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임현진·공석기, 2006).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더 이상 선진국 주도의 초국적 사회운동 활동에 맡겨서는 안된다. 풀뿌리 시민사회운동 단체도 '매개고리' (bridging)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 역할은 태로우가 제시한 '풀뿌리에 기초한 전지구적 활동가' (rooted cosmopolitan)를 얼마나 육성해나가는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Tarrow, 2005). 이러한 전지구적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포럼과 같은 초국적 공공영역에 풀뿌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초국적 사회운동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동원 및 운동프레임을 학습, 적용 그리고 응용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들이 한국 시민사회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몇가지 질문으로 도전하고자 한다. 초국적 공공영역, 초국적 사회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 그리고 풀뿌리에 기초한 전지구적 활동가 육성 등등의 논의가 한국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는가? 한국사회포럼과 한국 사회운동포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세계사회포럼이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동일하게 만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혹 그렇지 않다면 한국 시민사회는 지구민주주의의 실험장인 다양한 층위의 사회포럼에 대해 아직도 강경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가 바로 위기에 처한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 공석기 · 임현진 (2003), “지구시민사회는 가능한가?-초국적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2(2): 3-46.
- 임현진 · 공석기 (2006), “지구시민사회의 작동원리와 한국 사회운동의 초국적 동원전략,” 《한국사회학》 40(2): 1-36.
- Becker, Marc (2007), “World Social Forum,” *Peace & Change* 32(2): 203-220.
- Chase-Dunn, Christopher, Christine Petit, Richard Niemeyer, Robert Hanneman, Rebeca Giem, Erika Guetierrez and Ellen Reese (2006), “The Contours of Solidarity and Division among Global Movements,” a Paper presented at the ASA Meeting, Montreal, Canada.
- Cohen, Jim (2006), “Under the Sign of Bolívar: The World Social Forum of Caracas,” available on-line at <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ItemID=9695>. accessed 1/04/08.
- Guidry, John, Michael D. Kennedy, and Mayer N. Zald (eds.) (2000), *Global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Culture, Power, and the Transnational Public Sphere*.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ella Porta, Donatella, Massimiliano Andretta, Lorenzo Mosca, and Herbert Reiter (2006), *Globalization From Below: Transnational Activists and Protest Network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lla Porta, Donatella and Sidney Tarrow (2005), *Transnational Protest and Global Activism*. MD: Rowman & Littlefield.
- Glasius, M. and Jill Timms (2006), “The Role of Social Forums in Global Civil Society: Radical Beacon or Strategic Infrastructure,” in *Global Civil Society Yearbook, 2005/6*, edited by M. Glasius, et al. Thousand Oaks, CA: Sage.
- IBASE (2005), *World Social Forum: An X-Ray of Participation in the 2004 Forum: Excerpts for Debate*. WSF International Secretariat & Brazilian Institute of Social & Economic Analyses.
- Joyce, Frank (2007), “The Most Important Conference You Never Heard About,” available on-line at <http://www.alternet.org/stories/48097/> accessed 1/04/08.
- Khagram, Sanjeev, James V. Riker, and Kathryn Sikkink (2002), *Restructuring World Politics: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Networks, and Norms*. MN: Univ. of Minnesota Press.
- Patomäki, Heikki and Teivo Teivainen (2004), “The World Social Forum: An Open Space or a Movement of Movements,” *Theory, Culture & Society* 21(6): 145-154.

- Reese, Ellen, Mark Herkenrath, Christopher Chase-Dunn, Rebecca Giem, Erika Gutierrez, Linda Kim and Christine Petit (2006), "Alliances and Divisions within the Movement of Movements," A Paper Presented at the 2006 ASA Meeting in Montreal, Canada.
- Sen, Amartya (2000), "Democracy, the Only Way Out of Pover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17(1):28-30.
- Sen, Jai, Anita Anand, Arturo Escobar, and Peter Waterman (eds.) (2004), *World Social Forum: Challenging Empires*. New Delhi: Viveka.
- Smith, Jackie (2004), "The World Social Forum and the Challenges of Global Democracy," *Global Networks* 4(4): 413-421.
- _____ (2005), "Building Bridges or Building Walls? Explaining Regionalization among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10(2): 251-269.
- Smith, Jackie and Hank Johnston (eds.) (2002),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MD: Rowman & Littlefield.
- Smith, Jackie, Martina Karides, Marc Becker, Dorval Brunelle, Christopher Chase-Dunn, Donatella della Porta, Rosalba Icaza Garza, Jeffrey S. Juris, Lorenzo Mosca, Ellen Reese, Peter Smith, and Rolando Vázquez (2007), *Global Democracy and the World Social Forums*. Boulder, CO: Paradigm Publishers.
- Stiles, Kendall (ed.) (2000), *Global Institutions and Local Empower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 Tarrow, Sidney (2005), *The New Transnation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ivainen, Teivo (2002), "The World Social Forum and Global Democratization: Learning from Porto Alegre," *Third World Quarterly* 23(4): 621-632.
-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Crossroads*. New York: Oxford.
- Wallerstein, Immanuel (2004), "The Rising Strength of the World Social Forum," *Dialogue and Universalism* 14(3/4).
- Whitacker, Chico (2004), "The WSF as Open Space," in *World Social Forum: Challenging Empires*. Sen, Jai, Anita Anand, Arturo Escobar, and Peter Waterman (eds.) New Delhi: Viveka.
- WSF (2001), "WSF Charter of Principles,"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 WSF Mumbai (2004),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 WSF Porto Alegre (2005),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Global Democracy and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Focusing on the World Social Forums

Sukki Kong*

This paper highlights a big surge of World Social Forums (WSF) as a testing ground of global democracy, which has been severely damaged by the neoliberal world economy system by criticizing the latter as a democratic deficit. It starts with analyzing the origin, development, and diffusion process of the WSFs worldwide and then tries to address both external and internal obstacles intervening in the democratic, transparent, and efficient organization of the WSFs. The WSF as an open space, the so-called 'transnational public sphere' provides various participants with transnational movement frames, network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Many Third world civil societies isolated from the benefits tend to keep the rejectionist position toward such transnational activities. There is, however, a necessity of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current regionalization of the WSFs. Local civil societies, whether global North or South, should engage actively in regional social forums where they should not only educate the so-called 'rooted cosmopolitans' but also develop

* Senior Research Fellow, Central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NU; Research Areas: Political Sociology, Social Movements, Global Civil Society,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nd Sociological Methodology; Major Publications: "Transnational Mobilization to Empower Local Activism: A Comparison of the Korea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Movem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Dynamics of Global Civil Society and Transnational Mobilization of the Korean Social Movem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0(2): 1-36 (with Hyun-Chin Lim); "Dynamics of Transnational Mobilization i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rom Rio de Janeiro to Johannesburg," *ECO* Vol. 4: 8-45. Contact: 02-880-2513; E-mail: skong@snu.ac.kr

sustained networks with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o mobilize various transnational resources as well as global frames. Throughout the bottom-up participation, local civil society can learn, adapt, and apply such resources and frames to local settings.

Key words: World Social Forum, global democracy, transnational public sphere,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and regionalization